가족 이야기 (25-1)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동역자 모두와 함께 있길 기도합니다. 어느덧 2025년이 시작된지 1/4이 지나고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있는 이곳은 새해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은 C국 새해인 **'쫄츠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맞이한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쫄츠남의 상징과 같은 별(?)들을 주렁주렁 달아 놓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1분기의 시간이 놀랍기도 하지만 C국의 절기에 따라 맞은 새해를 통해 다시 2025년 사역계획을 정검하며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사역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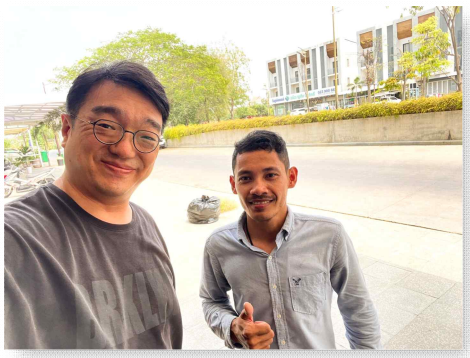
▷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회

새해부터 저희 가정은 정기적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비영리 단체인 헤브론병원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본병원은 매일 아침 일찍 도착한 순서대로 무료진료 번호표를 제공합니다. 환우들에게 이 번호표를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하루 전에 와서 병원의 대기실에서 잠을 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는 이른 아침에 번호표를 받기 위해 지난 밤을 병원에서 보내신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연주 후에는 고단한 밤을 보내고 진료를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작은 선물들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방과후 전도

C국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종교자유국가라고 하지만 엄연히 불교국가이며 이에 해가 되는 기타 종교의 포교는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예전 많은 학교 안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 같은 동상이 있었던 한국의 학교처럼 이곳에는 불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당연시 불교에 노출된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아내와 함께 방과 후 전도로 찾는 학교는 음악(예술) 학교이기는 하지만 불교문화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전통음악, 전통춤, 그리고 미술을 전공하

는 학생들이기에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빈도수가 잦아질수록 학생들은 마음은 열었고, 이제는 먼저 인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 이웃과의 만남

소소한 일상을 살다보면 매일 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걸음 떨어져서 보면 늘 새로운 만남들이 있습니다. 분명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한참을 비었던 그나마 깨끗한 곳을 렌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곳은 누군가 쓰던 집이면 썼던 집이라 고장이 나고, 빈집은 비었던 집이라 고장이 나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고쳐서 쓰고 있다보니 가만히 하루를 살아도 계속 새로운 현지 기술자(찌응)들이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은 물탱크가 터져서, 어느 날은 에어컨이 고장나서, 어느 날은 전기가 고장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저희는 그 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선물을 드리곤 합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현관부터 보이는 십자가는 공양을 하러 오신 승려들의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저희 집은 방문하는 현지인에게 저희 가정의 정체성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따뜻함을 담아 드리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쁘레야 영 스럴란 네악”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 기도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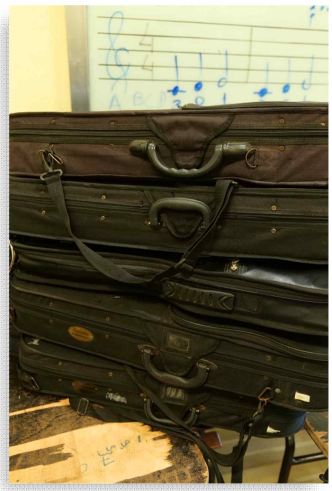
▷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얼마 전 한국에서 통증의학과 선생님의 C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 곳에서는 허리 디스크의 치료를 위해 받아야 할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방문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가지고 오신 의약품들로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수술 외 치료밖에는 없다는 말씀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C국 동역자

이른 아침 사진 한 장과 함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기도하는 피지씨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의 딸 싸니따와 함께 저의 집에 들러 자몽, 망고 그리고 구아바가 든 과일 봉지를 현관에 걸어 놓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피지씨는 저희 가정을 축복하며 모든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함께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C국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축복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마음에 괜시리 마음이 찡해 왔습니다. 걸어놓고 간 과일 한 봉지는 C국에서 버텨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 악기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 가정의 가장 큰 계획은 예배 처소의 마련입니다. 예배 장소를 위해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지역들을 탐방하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의 위치가 프놈펜 외곽이라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 좀 더 프놈펜 중앙에 장소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프놈펜의 집세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며 찾은 곳은 ○○ 이라는 지역입니다. 작은 사무실같은 공간에서부터 폐공장까지 두루두루 보며 장소를 두어군데로 좁혀보고 있으며 저희 가정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곳으로 인도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필요한 악기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피아노, 드럼, 기타, 음향기기 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이 곳에서 더 풍성한 예배가 드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C국을 위한 기도

1. C국의 지도자와 직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2. 선조들의 피값으로 이어온 기독교의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3. 고통받는 소외계층, 여성, 어린 아이들에게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4. 다음세대 제자들이 자국의 선교사, 아세안의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Ye's Fam을 위한 기도

1. 손형식. 이가람 선교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자녀 선교사들이 일찍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2.. 파송교회와의 만남을 이어주시고 하시고 함께 부흥을 이끌어 갈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어 더불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3. 손선교사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한다는 진단 속에서 여호와 라파의 주님께서 주의 종을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4.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장소를 찾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하옵소서.
5. 예배 처소와 교육에 필요한 도구의 후원이 있게 하옵소서.
6. 자녀들이 좋은 교육 환경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학교에 내야 할 비용을 채워주소서.
7. 우리가 나약함을 고백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믿음 속에서 즐거운 기다림이라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요즘 이곳은 점점 더워져가고 있습니다.(38도~) 이제 36도 정도 되는 날씨에는 '오~ 오늘 날씨 좋은데?.'라는 말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이라면 폭염이라고 말할만한 날씨임에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 절대 적응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날씨도 익숙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언제나 누구 하나는 불만을 얘기할 법도 한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은 저희와 함께 잘 견디어 주고 있습니다. 몇일 전 넷째 아이 예온이가 이런 이야기를 가족 모두에게 해 주었습니다. **"포기라는 말은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야!"**
맞습니다.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C국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을 보고,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하는 곳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발을 내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쁘레아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후원문의

파송단체 : 바울선교회 063.254.8418 / 이메일 : hsson77@naver.com / 카톡ID : hsson77 / GorgeousRiver
연락처 : 82.(0).10 7923 0179 / 855 (0)96 741 2375

손형식. 이가람 선교사 예서. 예나. 예헌. 예온. 예흠 드림